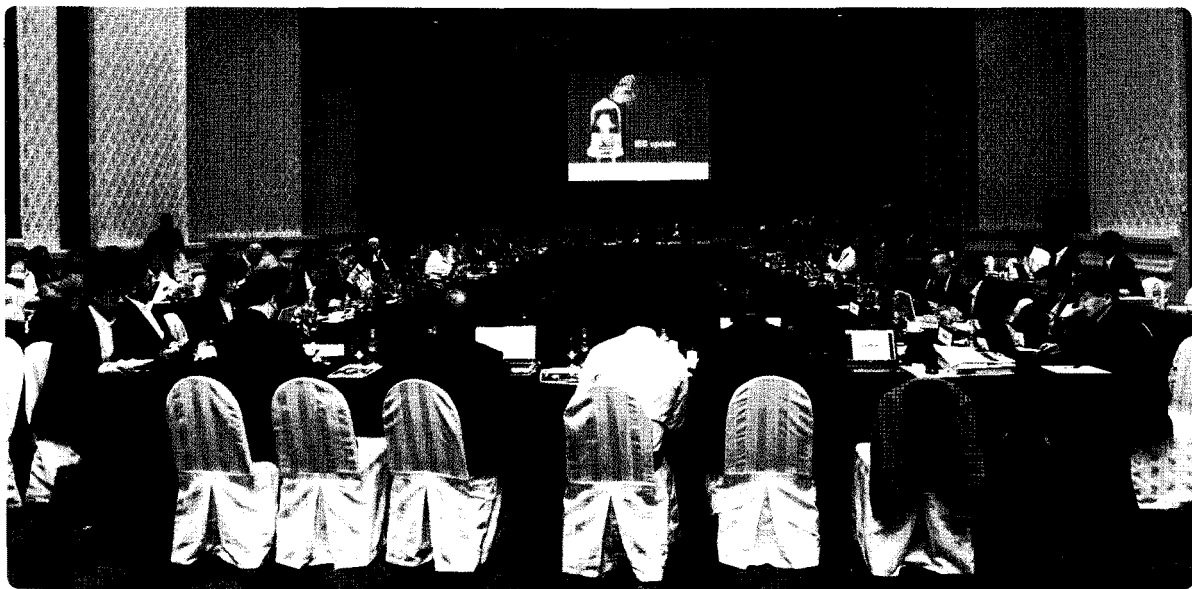




아·태지역 재난방지 등 국민안전을 고민한 PASC 총회 한국, 내년 6월 여수에서 개최될 제35차 PASC 회의 의장국 수행 예정



▲ 지난 3월 30일부터 5일간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PASC 총회에서 참가국들은 재난관리 표준화 등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기술표준원은 아·태지역 23개국의 표준협력을 위한 PASC(태평양지역표준회의) 총회기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5일간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PASC는 미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태평양지역 23개국으로 구성된 지역표준화기구로 ISO/IEC/ITU 등의 국제표준화기구 내에서의 위상과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어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대응 활동을 해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국민건강, 제품안전, 정보보안 등의 주요 분야에 대해 일본, 중국, 뉴질랜드 등이 표준개발정책과 추진현황을 발표하였으며, 개발된 표준이 각국의 국가 공공정책으로 반영되기 위한 과정과 그 후의 기대효과 등이 집중 논의되었다.

특히 최근 일본, 태국 등 아태지역에 지진과 쓰나미 등으로 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듯 재난관리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뜨거워, 재난 발생 시 올바른 정보전달을 위한 표준 등 사후조치와 구호활동에 대한 표준개발 시급성이 지적되고, 관련 표

준 개발이 제안되었다. 이에 따라 PASC 회원국들은 재난방지, 에너지효율, 전기안전 등의 분야에서도 표준개발을 증진하고, 이를 자국의 공공정책으로 적극 반영함은 물론 국제표준화 추진을 위한 아·태 지역의 공동 협력방안 마련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하였다.

우리나라는 PASC 총회에서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과 올 9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인증 활성화를 위한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중국, 일본과 양자회담을 개최하여 3국의 민간표준화 활동 지원방안, 인도와는 탄소라벨링 관련 공동 협력방안, 몽고와는 계량 적합성분야의 지원방안을 협의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내년 6월 전라남도 여수에서 개최될 제35차 PASC 회의의 의장국을 수행할 예정이어서 여수 엑스포의 수제인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과 연계한 환경표준화를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 기술표준원 국제표준협력과(02-509-7400)